

鬱症의 形象醫學的 高찰

강경화 · 김인진¹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한방바이오연구센터, 1 : 우리한의원

Study on Depressive Syndrome in Hyungsang Medicine

Kyung Hwa Kang, In Jin Kim¹,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 Biomedical Research Center of Oriental Medicine, Donggwi University, 1 : Taegang Oriental Clinic

From a view point of Hyungsang medicine a study is made on depressive syndromes through "Donguibogam(東醫寶鑑)", "Clinical lectures by Mr. Jeesan(芝山先生 臨床學特講)" and other literature. Depressed energy(鬱) originally meant the disorder of vital energy in the circulation of nature with the lapse of time. In later, it has been changed to mean the disease of man, especially related to the mind. Depressive syndromes come from the stagnation of the Ki or the abnormal circulation(rising, falling, coming and going), which happens when man cannot adjust oneself to the circumstances due to the disharmony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Depressive syndrome easily attacks the following types of persons ; Dam type person with excessive Ki and deficient Hyung(形), manly woman, womanly man, Bird type person who shows a great variety of emotion, Turtle type person declined to melancholy, Ki type person apt to be depressive, and Shin type person with upward gush of the fire. It also attacks the persons who have smudgy face with the scar between eyebrows, those whose pulses are mixture of two different kinds and those whose pulses extend on two ranges in Jeesan's diagram. Depressive syndromes recorded in "Donguibogam" are globus hystericus, chest congestion, gastric discomfort, cough and asthma caused by depressed Ki, abdominal mass, edema, and tympanites. The most effective prescriptions for depressive syndromes are Eajintang(二陳湯), Guibitang(歸脾湯), Hyangsosan(香蘇散), and Gamisachiltang(加味四七湯).

Key words : depressive syndrome(鬱症), Hyungsang medicine, Jeesan's diagram(지산도표), Donguibogam(東醫寶鑑)

서론

鬱이란 기가 엉기거나 물린 것이 해쳐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올라가야 할 것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야 할 것이 내려가지 못하며 변화되어야 할 것이 변화되지 못하는 것¹⁾으로 정의하였다.鬱에 대하여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는 木鬱, 火鬱, 土鬱, 金鬱, 水鬱²⁾로 나누었고, 《素問·刺法論》에서는 升降不前 氣交有變 卽成暴鬱³⁾이라 하여 기의 升降이 外部 六氣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때로 언급되었으나, 後代에 이르러 朱丹溪는 氣鬱-濕鬱-熱鬱-痰鬱-血鬱-食鬱의 순서로 전변되는 과정으로 설명하여 鬱의 시초가 氣鬱이라 하였다.⁴⁾

이상으로 볼 때 《內經》에서는 鬱을 歲氣의 交叉에서 발생

되는 氣交之變만을 의미하였으나⁵⁾ 이후에는 外感 六氣뿐만 아니라 內傷 七情 飲食 등으로도 이루어지는데 특히 정신적인 측면에 관련된 질환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東醫寶鑑》에서 鬱로 인하여 나타나는 病症을 살펴 보면 夢泄⁶⁾, 七氣⁷⁾, 中氣⁸⁾, 氣痛⁹⁾, 氣逆¹⁰⁾, 氣鬱¹¹⁾, 驚悸¹²⁾, 怔忡¹³⁾, 健忘¹⁴⁾, 癩癩¹⁵⁾, 癩狂¹⁶⁾, 脫營失精¹⁷⁾, 薄厥¹⁸⁾, 思結不睡¹⁹⁾,

- 1)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1278
- 2) 배병철, 今釋黃帝內經素問, p753
- 3) 上揭書 p755
- 4)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1278
- 5) 大韓東醫生理學會, 東醫生理學, pp114-115
- 6)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148
- 7) 上揭書 p163
- 8) 上揭書 p165
- 9) 上揭書 p168
- 10) 上揭書 p171
- 11) 上揭書 p172
- 12) 上揭書 p185
- 13) 上揭書 p187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시 진구 양정2동 산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ee@deu.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4/07/30 · 수정 : 2004/08/28 · 채택 : 2004/09/21

鬱痰²⁰), 氣痰²¹), 大小便不通²²), 氣₁₁²³), 肩接骨痛²⁴), 耳鳴²⁵), 耳聾²⁶), 梅核氣²⁷), 積心痛²⁸), 七情心痛²⁹), 胸痞³⁰), 乳癰³¹), 氣腰痛³²), 氣鬱脇痛³³), 麻木³⁴), 肩臂痛³⁵), 痿病³⁶), 氣疝³⁷), 陰挺³⁸), 氣痔³⁹), 手足癱瘓⁴⁰), 傷寒煩燥⁴¹), 懊憹怫鬱⁴²), 濕熱病⁴³), 五心熱⁴⁴), 脾結不食⁴⁵), 吞酸吐酸⁴⁶), 嘈雜⁴⁷), 噫氣⁴⁸), 霍亂⁴⁹), 嘔吐⁵⁰), 噎膈反胃⁵¹), 氣嗽⁵²), 鬱嗽⁵³), 氣喘⁵⁴), 積聚⁵⁵), 結陽⁵⁶), 氣脹⁵⁷), 溫疫⁵⁸), 邪崇⁵⁹), 癰疽⁶⁰), 等이다.

이를 종합하면 精氣神血, 五臟六腑, 身形, 六氣 內傷 雜病에 이르는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病症이 드러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鬱에 해당되는 形象的인 特徵은 氣科, 神科, 鳥類, 甲類,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印堂에 주름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경우, 얼굴에 잡티가 많은 경우, 눈꼬리가 올라간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저자는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鬱의 개념과 생성을 고찰하고, 아울러 形象醫學의 관점에서 鬱病을 잘 유발시키는 類

- 14) 上揭書 p189
- 15) 上揭書 p192
- 16) 上揭書 p197
- 17) 上揭書 p201
- 18) 上揭書 p219
- 19) 上揭書 p240
- 20) 上揭書 p280
- 21) 上揭書 p281
- 22) 上揭書 p474
- 23) 上揭書 p492
- 24) 上揭書 p503
- 25) 上揭書 p577
- 26) 上揭書 p578
- 27) 上揭書 p639
- 28) 上揭書 p667
- 29) 上揭書 p669
- 30) 上揭書 p673
- 31) 上揭書 p689
- 32) 上揭書 p715
- 33) 上揭書 p721
- 34) 上揭書 p734
- 35) 上揭書 p769
- 36) 上揭書 p785
- 37) 上揭書 p806
- 38) 上揭書 p824
- 39) 上揭書 p834
- 40) 上揭書 p962
- 41) 上揭書 p1033
- 42) 上揭書 p1034
- 43) 上揭書 p1090
- 44) 上揭書 p1111
- 45) 上揭書 p1146
- 46) 上揭書 p1149
- 47) 上揭書 p1152
- 48) 上揭書 p1154
- 49) 上揭書 p1200
- 50) 上揭書 p1209
- 51) 上揭書 p1215
- 52) 上揭書 p1239
- 53) 上揭書 p1235
- 54) 上揭書 p1250
- 55) 上揭書 p1275
- 56) 上揭書 p1309
- 57) 上揭書 p1316
- 58) 上揭書 p1382
- 59) 上揭書 p1397
- 60) 上揭書 p1406

形을 제시하여 그 類形에 따라 形色脈症의 合一을 통한 診斷 및 治法으로 얻은 임상예를 보고하는 바이다.

본론 및 고찰

1. 《東醫寶鑑》에 나타나는 鬱病의 분포

《東醫寶鑑》에 나타나는 鬱病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內景篇에서는 精門의 夢泄, 氣門의 七氣·中氣·氣痛·氣逆·氣鬱, 神門의 驚悸·怔忡·健忘·癡癎·癡狂·脫營失精, 血門의 薄厥, 夢門의 思結不睡, 痰飲門의 鬱痰·氣痰, 大便門의 大小便不通에 나타난다. 둘째, 外形篇에서는 頭門의 氣暈·眉接骨痛, 耳門의 耳鳴·耳聾, 咽喉門의 梅核氣, 胸門의 積心痛·七情心痛·胸痞, 乳門의 乳癰, 腰門의 氣腰痛, 脇門의 氣鬱脇痛, 皮門의 麻木, 手門의 肩臂痛, 足門의 痿病, 前陰門의 氣疝陰挺, 後陰門의 氣痔, 風門의 手足癱瘓, 寒門의 傷寒煩燥·懊憹怫鬱, 濕門의 濕熱病, 火門의 五心熱, 內傷門의 脾結不食·吞酸·吐酸·嘈雜·噫氣, 霍亂門의 霍亂, 嘔吐門의 噎膈·反胃, 咳嗽門의 氣嗽 鬱嗽 氣喘, 積聚門, 浮腫門의 結陽, 脹滿門의 氣脹, 溫疫門, 邪崇門, 癰疽門에 나타난다.

이상을 종합하면 氣와 관련된 질환에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2. 鬱病의 개념

人體가 生命活動을 榮衛하는 與件에 內的與件과 外的與件이 있으며 그 중 內的與件은 주로 五臟六腑의 運行에 영향을 미치고, 外的與件은 주로 時間 空間 方位 場所, 卽 六氣의 運行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인체가 內外與件의 변화에 따라 상응하여 조화를 이룰 때 정상적인 生命活動이 영위된다. 鬱은 內外與件의 변화에 상응하지 못하여 생기는데, 내적으로는 五臟六腑의 機能이 정상적으로 運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서 內的與件은 飲食, 居處, 陰陽, 喜怒로 요약된다. 이는 陰陽病⁶¹⁾ 中陰病에 해당되고 陽病은 風雨寒暑로 外的條件에 해당된다. 따라서 鬱이 형성될 수 있는 경우는 內的與件의 不調和 또는 運行失調, 外的與件의 過不及으로 형성된다. 즉 氣가 鬱했다는 것은 그 여건에 따라 적응을 하지 못하여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⁶²⁾이므로 총괄적으로 보면 人體가 內外的 여건에 따라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鬱의 발생

人體의 氣는 겉으로는 몸체와 팔다리로 가고, 안으로는 五臟六腑에 가서 순환하지 않는 곳이 없다⁶³⁾고 하고 그 根源은 腎間動氣이며 呼吸의 根源이 된다고 하였다⁶⁴⁾. 즉 氣는 轉化作用을 근본으로 삼는 것으로 升降 出入 변화作用이 순조로울 때 人體는 건강을 유지한다.

이와 같이 氣가 轉化, 즉 升降 出入 및 변화를 하지 못하는

61) 上揭書 p889

62)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臨床學特講 V, pp14-15

63)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159

64) 上揭書 p159

경우는 精氣가 交合되지 못하거나, 臟腑가 運行이 안 되거나, 春夏秋冬에 상응하지 못하거나, 六氣에 상응하지 못하는 때⁶⁵⁾이며 이때 鬱이 발생한다. 精氣가 交合되지 못하는 경우는 精氣神血의 運行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精이 化하여 氣가 되고, 精과 氣가 交合하여 神을 낳으며, 神이 불안하면 精氣가 交合되지 못하고, 반대로 精氣가 交合되지 못하면 神이 불안해서 運行하지 못한다. 즉 氣는 精神의 根蒂⁶⁶⁾라 하여 精과 神의 運行 主體가 되며 이러한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막히는 현상을 七氣⁶⁷⁾와 七情⁶⁸⁾으로 보았다.

臟腑의 運行이 안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臟腑는 人體의 內的條件으로 生의 根本이 되고 그것의 機能은 飲食, 居處, 陰陽, 喜怒로 요약되며 이는 內的·外的 條件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해야만 제대로 運行이 된다. 즉 五臟도 飲食, 居處, 陰陽, 喜怒의 活動이 過하거나 不足할 때 春夏秋冬 六氣의 여건에 맞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때 運行의 失調를 나타나게 된다.

4. 鬱의 분류

1) 五鬱⁶⁹⁾

(1) 木鬱 : 金氣가 偏勝하여 木氣를 抑制하므로 木氣가 抑鬱되는 것이다.

(2) 火鬱 : 水氣가 偏勝하여 火氣를 抑制하므로 火氣가 抑鬱되는 것이다.

(3) 土鬱 : 木氣가 偏勝하여 土氣를 抑制하므로 土氣가 抑鬱되는 것이다.

(4) 金鬱 : 火氣가 偏勝하여 金氣를 抑制하므로 金氣가 抑鬱되는 것이다.

(5) 水鬱 : 土氣가 偏勝하여 水氣를 抑制하므로 水氣가 抑鬱되는 것이다.

2) 六鬱⁷⁰⁾

氣가 물리면 濕이 막히고 濕이 막히면 熱이 생기며 熱이 물리면 痰이 생기고 痰이 막히면 血이 잘 돌지 못하고 血이 막히면 飲食이 잘 消化되지 못한다. 즉 六鬱은 서로 聯關되어 생기는 것이다.

5. 形象醫學的으로 본 鬱病

形象醫學은 存在物의 形態, 性情, 機能, 色을 파악하여 內外的 條件에 따라 形色脈症을 合一하는 診斷方法을 통하여 健康을 保養하고 疾病을 치료하는 학문으로 여기서는 形色脈症의 분류에 따라 鬱을 논하고자 한다.

1) 形色에 의한 분류

形象을 大別하면 臍體, 膀胱體로 나누어지며 臍體는 氣盛形衰, 血虛有火하며, 膀胱體는 形盛氣衰, 氣虛濕痰한 特徵을 나타낸다.⁷¹⁾ 男女로 나누면 男子는 陽에 속하여 氣가 흠어지기 쉬우

나 女子는 陰에 속하여 氣가 鬱滯되기 쉽다.⁷²⁾ 따라서 氣盛形衰한 臍體와 氣가 鬱滯되기 쉬운 女子에게 鬱病이 많다. 走鳥魚甲類⁷³⁾로 나누어 볼 때 鳥類는 대체로 感情의 변화가 많고, 몸이 더운 火體이므로 疴雜 등의 증상이 잘 발생하여 火를 내리면서 補陰補血하는 治法을 응용한다. 또한 甲類는 대체로 憂鬱하고 말이 적은 性情으로 鬱病이 잘 발생한다. 精氣神血科⁷⁴⁾로 나누어 볼 때 氣科는 氣가 鬱滯되거나 맞는 경우가 많고, 神科는 火가 盛하여 痰火 또는 七情鬱結이 잘 드러난다. 男子같은 女子는 七氣가 鬱滯되고 女子같은 男子는 七情이 動한다.⁷⁵⁾ 또한 六經形中 陽明의 경우는 多氣多血하기에 욕심이 많아 鬱하기 쉽다.⁷⁶⁾ 鬱病은 눈꼬리가 올라간 경우에도 잘 발생하며 얼굴에 잡티가 많고, 특히 印堂 주위에 흠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脈에 의한 분류

鬱脈⁷⁷⁾은 沈伏이 많고 혹 沈結, 沈促, 沈代하다고 하여 성격이 다른 두 가지 脈이 混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 芝山圖表⁷⁸⁾에서는 주로 肝脾, 脾胃 등에 脈이 걸치게 되면 鬱病이 發生된 것을 알 수 있다.

3) 症에 의한 분류

梅核氣, 胸痞, 嘈雜, 嘔吐, 氣嗽, 氣喘, 積聚, 脹滿 등이 발생하는데 주로 목, 가슴, 腹部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6. 鬱의 임상예

1) 形色에 의한 분류

(1) 임상례-1 : 정○○ 여자 14세

① 내원일 : 1998. 10. 17

② 形色 : 神科. 마르고 살이 없음.

③ 脈 : 72 / 72

④ 症 : 腹痛을 호소하고 初經이 없다. 中指가 나쁘다. 渴症을 많이 느끼고 盜汗 증상이 있다.

⑤ 치료 및 경과 : 歸脾湯⁷⁹⁾

⑥ 고찰 : 女子 나이 14세는 天癸가 이르러 生理가 시작되는 시기이다.⁸⁰⁾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 아직 生理가 통하지 않는 것은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지 못하는 鬱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中指는 人身에서 子午의 軸에 해당되는데 子午는 머리와 生식기를 의미하므로 形象的으로 볼 때 이 部位의 病이 本病이 된다.

(2) 임상례-2 : 이○○ 여자 42세

① 내원일 : 1999. 10. 9

② 形色 : 顳骨이 발달한 氣科

③ 脈 : 90 / 90

④ 症 : 숨이 차고 消化가 안 되며 腰痛이 있다. 엄지손가락이 썩거나 굼는다. 憂鬱하다.

65)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臨床學特講VI, p232

66)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157

67) 上揭書 p163

68) 上揭書 pp182-184

69) 張介賓 著, 類經2 6卷 運氣類, pp617-618

70)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1278

71) 백근기, 이용태, 形象에 관한 文獻 高찰, pp2-4

72)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臨床學特講V, p4

73) 백근기, 이용태, 形象에 관한 文獻 高찰, p433

74) 上揭書 p433

75)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臨床學特講V, p17

76) 上揭書 p213

77)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1277

78)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臨床學特講III, p40

79)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p190

80) 上揭書 p117

⑤ 치료 및 경과 : 加味四七湯⁸¹⁾

1999. 10. 25 내원. 脈 80-80. 마음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고 숨이 찬 것이 좋아짐. 상기의 처방을 用.

⑥ 고찰 : 顙骨이 발달한 것은 뼈가 발달한 것으로 臟腑로는 臂에 해당되며 엄지손가락의 異常은 肺에 해당된다. 肺와 臂에 공통적으로 疾病이 나타난 것은 人體 後面의 이상으로 주로 男子에게 頻發하는 경우이다. 또, 肺는 氣를 主管하고⁸²⁾ 모든 氣는 肺에 속하는데 氣가 지나치게 많으면 기침이 나고 숨이 차다. 상기 환자는 男子같은 女子로서 鬱火가 많은 사람이고 엄지손가락의 이상과 숨이 찬 것은 氣가 흠어지지 않아 생긴 증상으로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3) 임상례-3 : 박○○ 여자 39세

① 내원일 : 2000. 5. 22

② 形色 : 氣科. 顙骨발달

③ 脈 : 92 / 86

④ 症 : 항상 감기기운과 피부가려움이 있다. 消化가 잘 안 되고 등과 가슴이 아프다. 不整脈

⑤ 치료 및 경과 : 行氣香蘇散 去 麻黃 加 神麴 檳榔⁸³⁾

2000. 6. 10 내원. 脈 72-72. 감기기운이 없어지고 소화가 잘 됨. 상기의 처방을 투여함

⑥ 고찰 : 氣科는 氣가 순환되지 못하여 病이 온다. 氣科의 基本 病理는 氣鬱이니 行氣가 우선이다. 상기 환자는 消化不良과 등이 아프며 不整脈이 있는 것으로 보아 內症과 外症을 겸비하고 內外의 연결이 안 되는 것으로 이 때 반드시 寒熱이 발생된다. 氣科는 氣鬱이 잘 되고 氣는 火의 싸이 되므로 火가 발생하여 皮膚로 發散되는 과정에서 皮膚 가려움증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氣鬱을 咳嗽하고 外感과 內傷 및 七情으로 인하여 발생한 胸腹脹痛을 치료하는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4) 임상례-4 : 김○○ 여자 27세

① 내원일 : 1999. 10. 20

② 形色 : 神科 코가 내려 먹음. 마른 편

③ 脈 : 78 / 80

④ 症 : 손발이 화끈거리고 귀 뒤와 목옆에 뒬가 잘 생긴다. 화가 잘 난다.

⑤ 치료 및 경과 : 火鬱湯⁸⁴⁾

⑥ 고찰 : 이 환자는 火가 잘 動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神科의 性情으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火가 鬱滯되어 흑과 같은 것이 귀뒤와 목옆에 발생되었다. 五心이 煩熱하는 것은 火가 가운데서 鬱滯된 것인데 이것은 心火가 脾土의 가운데 下陷하여 鬱하므로 퍼지 못하는 현상이다.⁸⁵⁾ 그래서 全身의 火鬱을 풀어주는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5) 임상례-5 : 정○○ 여자 45세

① 내원일 : 1999. 2. 12

② 形色 : 神科 코 위주로 생김. 측면이 발달.

③ 脈 : 68 / 64

④ 症 : 마음이 편치 않고 우울하며, 臍이 부어 있고 陰部에 뒬가 난 것 같이 불편하다.

⑤ 치료 및 경과 : 補中益氣湯과 歸脾湯加味方을 間服⁸⁶⁾

1999. 2. 20 내원. 脈 68-68. 마음이 편안해지고 음부에 뒬가 난 것 같은 것이 줄어들. 상기의 처방을 투여함.

⑥ 고찰 : 이 환자는 神科이기에 感情의 변화가 크므로 주위 환경의 여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 脈이 肝脾鬱로 나타나고, 臍이 부어 있고 陰部에 뒬가 난 것 같은 경우는 七情으로 몰린 火에 肝脾가 傷하여 濕熱이 아래로 몰렸기에 생긴 것이므로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6) 임상례-6 : 박○○ 남자 21세

① 내원일 : 1997. 6. 21

② 形色 : 東南人. 눈썹이 진하고 수염이 많다. 面赤

③ 脈 : 80 / 84

④ 症 : 脾胃가 弱하고 화를 잘 낸다.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 안 되고 간혹 속쓰림이 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⑤ 치료 및 경과 : 養血四物湯⁸⁷⁾

1997. 7. 10 내원. 脈 80-80. 소화가 조금 잘 되고 마음이 편한 것 같다. 상기의 처방을 투여함.

⑥ 고찰 : 이 환자는 눈썹이 진하므로 본래 血氣가 旺盛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는 性情을 가지고 있다. 또한 女子같은 男子가 消化가 되지 않는 것은 氣가 순조롭게 運行되지 못하고 鬱을 形成하기 때문에 痰火가 脾胃의 消化作用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7) 임상례-7 : 이○○ 여자 30세

① 내원일 : 1998. 3. 13

② 形色 : 氣科. 남자 같은 여자. 面浮禿

③ 脈 : 72 / 70

④ 症 : 全身刺痛. 마음이 우울하고 잘 붓는다. 氣海穴 壓痛. 허리와 아랫배가 자주 아프다. 몸살 기운이 항상 있다.

⑤ 치료 및 경과 : 七氣湯⁸⁸⁾

⑥ 고찰 : 氣科는 우선 氣의 運行이 안 되어 鬱滯가 되고 津液이 津液化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臨床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은 寒熱의 不調和, 浮腫, 脹滿, 積聚 등을 유발한다고 하였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그 形에 그 病이 생기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되므로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8) 임상례-8 : 강○○ 여자 43세

① 내원일 : 1999. 9. 26

② 形色 : 頭大 肌色如常(痰飲의 形象)

③ 脈 : 86 / 90

④ 症 : 속이 미식거리고 배에서 소리가 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열이 자주 오르고 어지러울 때가 많다. 뒷목이 뻣뻣하고 화끈거리다. 中腕에 壓痛이 있고 땀뻣한 것이 있다.

⑤ 치료 및 경과 : 二陳湯 加 酒芍, 羌活, 紅花⁸⁹⁾

⑥ 고찰 : 여자가 머리가 크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려하나

81) 上揭書 p187
82) 上揭書 p161
83) 上揭書 p667
84) 上揭書 p1111
85) 上揭書 p1111

86) 上揭書 p825
87) 上揭書 p1153
88) 上揭書 p163
89) 上揭書 p653

제 뜻대로 안 되니까 氣가鬱滯되기 쉽다는 뜻이다. 中脘은 手足의 中心이 된다. 목은 머리와 몸통 즉 天地의 中間이다. 天地의 中心軸이 나쁜 것은 水火의 중심축인 中脘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中脘의 이상과 肌色이 如常한 것 또한 痰飲이므로 痰飲을 풀어주는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9) 임상례-9 : 조○○ 남자 56세

① 내원일 : 1994. 7. 9

② 形色 : 瘦人. 코가 크고 눈썹이 짙다. 印堂에 흠집이 있음. 面黑

③ 脈 : 76 / 76

④ 症 : 손발이 저리고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 신경만 쓰면 소화 안되고 불안 초조하다. 피로하고 呑酸症이 있다. 화를 잘 낸다.

⑤ 치료 및 경과 : 增味二陳湯⁹⁰⁾

1994. 7. 25 내원. 脈 72-72. 기분이 조금 낮고 신물이 덜 올라 온다고 함. 상기의 처방을 투여함.

⑥ 고찰 : 印堂의 흠집은 鬱症으로 보고 男子가 눈썹이 짙은 것은 血氣가 旺盛하고 아울러 性情이 女性과 같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며 七情이 잘 動하여 鬱火가 잘 발생되는 체질이기때 鬱火로 인하여 津液이 全身으로 퍼지지 못하고 鬱積이 오래되어 濕熱이 발생되면 痰이 형성되어 呑酸症⁹¹⁾을 만들기에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10) 임상례-10 : 김○○ 여자 37세

① 내원일 : 1998. 7. 27

② 形色 : 印堂이 鬱. 눈꼬리가 올라감

③ 脈 : 80 / 86

④ 症 : 허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자주 저리다. 마음이 우울하여 자주 운다. 등과 가슴이 간혹 불편하다.

⑤ 치료 및 경과 : 開結舒經湯⁹²⁾

⑥ 고찰 : 印堂이 鬱한 것은 心氣가 鬱滯된 것이다. 또 눈꼬리가 올라간 것은 感情의 변화가 多樣하고 暴急해서 七情을 쉽게 動하게 한다. 氣가 七情으로 인하여 막혀서 痰이 생기는 것을 氣滯라고 한다. 氣鬱을 이루어 痰이 經絡을 막아 팔다리가 저린 것을 치료하는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11) 임상례-11 : 강○○ 여자 30세

① 내원일 : 1998. 2. 6

② 形色 : 肥人 地積象 陽明. 얼굴이 약간 검고 印堂부위에 사마귀가 있다.

③ 脈 : 52 / 52

④ 症 : 消化가 안 되고 속이 쓰리며 트림이 가끔 나온다.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허리와 다리가 많이 불편하다.

⑤ 치료 및 경과 : 化痰清火湯⁹³⁾

⑥ 고찰 : 印堂 부위에 사마귀와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은 마음이 불편하거나 鬱하기 쉽고 多氣多血한 陽明으로 과식으로 인한 內傷이 올 수 있으며 女子가 얼굴이 검은 편이므로 痰火가 있을 수 있고, 脈이 三焦에 맞아 痰에 떨어졌으므로 七情이 鬱해서 病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기 환자는 痰火로 인한 嘈雜症이기

에 陽明形에 주로 사용하는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2) 脈에 의한 분류

(1) 임상례-1 : 문○○ 여자 39세

① 내원일 : 1998. 2. 8

② 形色 : 印堂이 鬱. 乳房이 작다. 얼굴이 깨끗하지 못하다.

③ 脈 : 70 / 64

④ 症 : 月經不通. 가슴이 답답하고 消化가 안 된다. 짜증이 잘 난다. 다리가 시리다.

⑤ 치료 및 경과 : 加味歸脾湯⁹⁴⁾

1998. 2. 25. 脈 70-70. 마음이 편안하고 소화는 잘 되는데 월경은 아직 不通. 상기의 처방을 투여함.

⑥ 고찰 : 이 사람은 脈이 肝脾에 걸쳐서 왔으므로 肝脾가 鬱한 症이며, 膽脈은 消化가 안 되는 것이 보통이다. 印堂이 鬱한 것도 思慮過多로 인한 心氣鬱滯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女子는 鬱火가 있어서 血이 耗損되어 月經이 不通하게 된 것이다. 남들이 시집을 가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하므로 怒鬱이 생기고 肝氣가 鬱하여 血을 傷했기 때문에 月經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2) 임상례-2 : 김○○ 여자 25세

① 내원일 : 1996. 3. 13

② 形色 : 氣斜 臍體 입술과 눈꺼풀이 두툼하고 눈꼬리가 들리고 코가 내려 먹음.

③ 脈 : 88 / 86

④ 症 : 난소의 물혹으로 2-3주 전에 수술을 받음. 손이 차갑고 魚際가 푸르다. 마음이 늘 憂鬱하다.

⑤ 치료 및 경과 : 歸脾湯⁹⁵⁾

1996. 3. 28 내원. 脈 76-76. 수술한 부위가 아프고 불편함. 加味十全湯을 투여함.

⑥ 고찰 : 근심이 풀리지 않으면 意를 傷하거나 근심하면 氣가 막혀서 잘 돌지 못하는데⁹⁶⁾ 氣鬱이란 氣가 돌아가야 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心氣가 鬱하여 心氣의 변화가 子宮의 運行에 영향을 주어 卵巢에 물혹이 생기게 만든 것이다. 상기 환자는 憂鬱한 마음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歸脾湯을 처방하였다.

3) 症에 의한 분류

(1) 임상례-1 : 강○○ 여자 41세

① 내원일 : 1998. 6. 23

② 形色 : 얼굴이 검고 맑지 못하고 볼과 입 주위에 거미가 있음. 눈과 코가 발달.

③ 脈 : 82 / 78

④ 症 : 항상 疲勞하고 목이 잘 붓는다. 憂鬱하고 마음이 편치 못하다. 消化가 안 되고 배에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다.

⑤ 치료 및 경과 六鬱湯 加 山查 神麩 麥芽⁹⁷⁾

1998. 7. 15 내원. 脈 72-70. 얼굴이 약간 맑아진 것 같고 소화가 조금 용이함. 상기의 처방을 투여함.

90) 上掲書 p1152

91) 上掲書 p1150

92) 上掲書 p735

93) 上掲書 p1153

94) 上掲書 p363

95) 上掲書 p190

96) 上掲書 p184

97) 上掲書 p1278

⑥ 고찰 :鬱이란 맺히고 모여서 發越하지 못하는 症이다. 마땅히 올라야 할 것이 오르지 못하고 내려야 할 것이 내리지 못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 변화하지 못하는 것⁹⁸⁾이니 얼굴이 추물고 맑지 못하는 形象은 傷寒과 傷濕, 經脈이 運行되지 못 할 때, 皮膚呼吸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따라서 상기 환자의 경우는 內的, 外的 與件변화에 상응하지 못해서 鬱한 것이므로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2) 임상례-2 : 박○○ 여자 41세

① 내원일 : 2001. 1. 29

②形色 : 印堂이 鬱하고 氣科

③脈 : 79 / 81

④ 症 : 梅核氣가 있으며 89년에 子宮手術을 했다. 손발이 저리고 붓진다. 左足에 정맥류가 있다. 不眠症이 있고 숨이 차다.

⑤ 치료 및 경과 : 加味四七湯⁹⁹⁾

⑥ 고찰 : 상기 환자는 子宮을 手術한 것이 흠이 되고 氣科이기에 氣가 鬱滯되는 病理가 많이 발생하는 類形이다. 그러므로 印堂이 鬱한 것은 心氣가 鬱滯된 것이다. 心氣가 鬱滯되어서 정맥류가 생겼고 숨이 차고 손발이 저리고 잠이 안 오는 증상을 치료하는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3) 임상례-3 : 안○○ 여자 55세

① 내원일 : 1998. 4. 3

②形色 : 눈이 陷沒. 顔色이 좋지 못하다.

③脈 64 / 64

④ 症 : 속이 미식거리고 열이 오른다. 가끔 헛배가 부르면서 가스가 찬다. 배속에 똥이 붓쳐지는 느낌이 있다.

⑤ 치료 및 경과 : 消積正元散¹⁰⁰⁾

1998. 4. 20 내원. 脈 60-62. 소화가 조금 잘 된다고 함. 상기의 처방을 투여함.

⑥ 고찰 : 이 경우는 氣血의 升降이 안 되어 들어온 病이다. 氣血이란 腠理를 통하여 일어나는 水火의 升降運動을 말하는 것이다. 통로가 막힌 것을 풀어주지 않고 내버려두면 積聚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상기 환자는 皮膚가 얇고 潤澤하지 못하며¹⁰¹⁾ 肌肉이 견고하지 못하여 氣血運行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며, 눈이 陷沒되어 있는 厥陰形으로 몸이 차고 腹部律動이 안 되어 脾胃의 運行이 되지 못하므로 脾胃를 돕고 積을 풀어주는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다.

(4) 임상례-4 : 김○○ 여자 33세

① 내원일 : 1998. 6. 19

②形色 : 코가 발달

③脈 : 98 / 96

④ 症 : 자궁에 혹이 있다. 脹滿과 梅核氣가 있다.

⑤ 치료 및 경과 : 木香調氣散¹⁰²⁾,

1998. 7. 8. 脈 80-80. 전체적으로 조금 편안한데 헛배가 부르고 숨이 찬 것이 심하다. 分心氣飲을 투여함.

⑤ 고찰 : 女子는 氣가 鬱滯되어서 病이 되고, 男子는 코가 發達되고 女子는 입이 발달되어야 하는데 女子가 코가 발달된 경우는 女子가 男子같은 경우에 해당되어 七氣로 인한 病이 오기 쉽다. 상기 환자는 변화할 때 변화하지 못하여 氣가 鬱滯되었다. 氣가 鬱滯되면 濕이 막히고 濕이 막히면 熱이 나기 때문에 氣鬱로 인해 흔히 積聚 浮腫 脹滿을 兼하게 되어¹⁰³⁾ 氣鬱을 풀어주는 상기 처방을 투여하였고 후에 氣脹을 치료하는 分心氣飲을 투여하였다.

결론

鬱病을 《東醫寶鑑》, 《芝山先生臨床學特講》 및 其他文獻을 통하여 形象醫學의으로 고찰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鬱은 본래 歲氣의 交叉에서 발생하는 氣交之變을 말하였으나 후대에는 인체에서 發生되는 病으로서 주로 정신적인 측면에 관련된 질환으로 인식되었다. 鬱病은 氣가 엉기거나 몰린 것이 헤쳐지지 않을 때 발생하며 氣의 升降出入이 圓滑하지 못할 때 발생되며, 이는 내적조건과 외적조건을 무조화한 인체가 與件에 따라 相應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鬱病이 발생되기 쉬운 形色으로는 氣盛形衰한 體,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다양한 감정변화를 드러내는 鳥類, 우울한 성정이 많은 甲類, 氣가 鬱滯되기 쉬운 氣科, 火가 잘 오르는 神科 등에 발생되고, 얼굴에 잡티가 많고 특히 印堂 주위에 흠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 脈에서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脈이 混雜된 경우와 芝山圖表에서 脈이 걸치게 되는 경우에 鬱病이 발생된다. 《東醫寶鑑》을 통한 病症은 주로 梅核氣, 胸病, 嗜雜, 氣嗽, 氣喘, 積聚, 浮腫, 脹滿 등에 주로 나타난다. 鬱病에 주로 쓰이는 처방은 二陳湯加味, 歸脾湯加味, 六鬱湯加味, 香蘇散加味, 加味四七湯 등이다.

참고문헌

1. 許浚 著, 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人文化社, 1999.
2. 배병철, 今釋黃帝內經素問, 서울, 成輔社, 1994.
3. 大韓東醫生理學會, 東醫生理學,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1993.
4. 백근기, 이용태, 形象에 관한 文獻 고찰, 東醫生理病理學會誌 제16권3호, 2003.
5.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Ⅲ, 芝山出版社, 서울, 1997.
6.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Ⅴ, 芝山出版社, 서울, 1998.
7. 大韓傳統韓醫學會, 芝山先生臨床學特講Ⅵ, 芝山出版社, 서울, 1998.
8. 강경화, 백근기, 김경철, 이용태, 芝山先生이 主唱한 膽膀胱 용어에 대한 研究, 東醫生理病理學會誌, 17(2); 275-292, 2003.
9. 張介賓 著, 類經, 서울, 慶熙大學校 韓醫大 출판국, 1996.

98) 上揭書 p1278

99) 上揭書 p187

100) 上揭書 p1285

101) 上揭書 p1275

102) 上揭書 p1280

103) 上揭書 p172